

2023년 태국 총선과 총리 선출: 군부가 선택한 민선 정부

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1년 UCL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서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선거, 정당, 국회, 정치/경제발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장도 맡고 있다.

2023년 태국 총선과 총리 선출: 군부가 선택한 민선 정부

신재혁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태국에서 2023년 총선과 총리 선출이 있었다. 군부에 반대하고 군주제 개혁을 주장한 피타 대표가 이끄는 전진당이 큰 인기를 얻어 하원 500석 중 151석을 확보하여 원내 제1당이 되었다. 하지만 피타 대표는 국회 투표에서 과반에 미달하여 총리로 선출되는 데 실패하였고, 원내 제2당 프아타이당의 세타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그 이유는 2017년 헌법으로 상원 250석을 장악한 군부가 군주제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 정당들과 연합하여 피타를 반대하고 세타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군부와 반군부 세력 간의 갈등에 더하여, 군주제 개혁을 바라는 젊은 개혁 성향 유권자와 현 군주제에 손을 대는 것을 꺼리는 나이 든 보수 성향 유권자 간의 갈등이 향후 태국 정치의 중심 균열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2위 정당 소속 정치 신인이 총리로 선출된 태국

2023년 5월 13일 실시된 태국 하원의원 선거에서 42세 정치인이자 사업가인 피타 림짜른랏(Pita Limjaroenrat)이 이끄는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은 하원 500석 중 151석을 확보하여 원내 제1당이 되었다. 전진당은 군주제 개혁, 징병제 폐지, 동성 결혼 합법화 등을 공약하며 개혁 세력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어서, 태국 수도 방콕에 할당된 33개 의석 가운데 32석을 획득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전진당 피타 대표는 총선 2위 프아타이당(Pheu Thai Party, For Thais Party) 등 7개 정당 연합을 결성하여 7월 13일 국회의 총리 선출에 도전하였으나, 상·하원 합동회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705표 중 선출 요건인 과반에 미달하는 324표를 얻는 데 그쳤다. 7월 19일에 총리 선출을 위한 2차 투표에 나섰으나 표결이 무산되었다.

8월 22일 총리 선출을 위한 국회 상·하원 합동회의가 다시 소집되었다. 이날 총리 후보는 5월 총선에서 2위를 차지한 프아타이당이 지명한 정치 신인 세타 타위신(Srettha Thavisin)이었다. 세타는 넉넉한 과반인 482표를 획득하여 총리로 선출되었다. 반대 165표, 기권 81명에 불과하였다.

옐로셔츠-레드셔츠 시위와 군부 쿠데타

2023년 5월 총선에서 젊은 피타 대표가 이끄는 전진당은 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되었고 7개 정당 연합으로 하원 500석 중 300석이 넘는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당 피타 대표는 왜 국회 과반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여 총리로 선출되지 못했을까? 총리 선출을 위한 2차 투표가 무산된 이후, 원내 제2당 프아타이당 세타 의원은 어떻게 국회 과반의 지지를 얻어 총리로 선출되었을까? 각종 여론 조사에서 프아타이당 총리 후보로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태국 총리의 딸 패통탄 친나왓(Phaethongthan Shinawatra)이 1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왜 친탁신계 프아타이당은 패통탄 대신 세타가 총리 후보로 지명했을까? 이하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할 것이다.

원내 제1당이자 정당 연합으로 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한 피타 대표가 총리로 선출되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2014년 5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수립한 제도화된 군사독재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2014년 쿠데타 발생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를 지낸 탁신 친나왓이 태국 정치에 끼친 영향력을 이해해야 한다.

탁신은 거대한 정보통신 회사(Shin Corporation)를 설립하여 막대한 재력을 축적한 사업가였다. 1994년 정치에 입문한 그는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타이애국당(Thai Rak Thai Party, Thais Love Thais Party)을 창당하였는데, 2001년 총선에서 타이애국당이 전체 500석 중 248석을 획득하는 큰 승리를 거두어 총리에 선출되었다. 탁신 정당이 큰 승리를 거둔 데에는 농가 부채를 탕감하고, 우리 돈 약 1천 원으로 어떤 병이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30바트 헬스케어와 같은 친농민, 친서민 공약이 주효했다. 총리 취임 후 탁신은 친농민, 친서민 공약을 실행에 옮겼다. 30바트 헬스케어를 신속하게 시행하였고, 부채 탕감과 농촌 개발 자금 투입으로 농가 소득을 높였다. 그 결과 2005년 총선에서 탁신의 타이애국당은 전체 의석 75%를 획득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탁신은 2006년 1월 태국 최대 통신회사(Shin Corporation)를 싱가포르 국영기업에 매각한 것이 알려지면서 큰 저항에 부딪힌다. 탁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민민주주의연대(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를 결성하고 탁신 총리 사퇴를 요구하며 노란색 셔츠를 입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옐로셔츠'라고 불린 이들의 시위가 거세지자 탁신은 2006년 6월 조기 총선 실시를 제안하지만, 다수 유권자가 지지하는 탁신을 이길 자신이 없었던 야당은 선거 보이콧을 선언했다. 탁신은 2006년 10월 조기 총선을 실시하고 자신은 총리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야당은 여전히 선거 불참 의사를 밝혔다. 결국 그

해 9월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하여 탁신 정부와 타이애국당을 해산시켰고, 탁신은 해외로 망명을 떠났다.

군부는 2007년 12월 총선을 실시하였는데, 친탁신 계열 인민역량당(People's Power Party)이 전체 480석 중 233석을 획득하여 집권에 성공한다. 다수 유권자는 여전히 탁신을 지지한 것이다. 탁신에 반대하는 옐로셔츠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고, 2008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선거 부정을 이유로 인민역량당을 해산시켰다. 그 후 제1야당 민주당이 집권하자 이번엔 탁신 지지자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반독재민주주의연합전선(United Front for Democracy Against Dictatorship)을 결성하여 빨간 셔츠를 입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레드셔츠 시위대가 2009년 5월에 이어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거센 시위를 벌이자 민주당 정부는 2011년 7월 조기 총선을 실시했다. 이 선거에서도 친탁신계 프아타이당이 국회 500석 중 265석을 차지하며 승리를 거두고, 탁신의 여동생 잉락(Yingluck Shinawatra)이 총리로 선출되었다. 2013년 잉락 총리가 탁신을 사면할 움직임을 보이자 반탁신 옐로셔츠가 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에 잉락 총리는 2014년 2월 조기 총선을 제안했고 제1야당 민주당은 선거 참여를 거부했다. 헌법재판소는 2월 총선을 무효로 했고, 5월 7일 잉락 총리를 파면했다.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뿌라웃(Prayut Chan-o-cha) 육군 참모총장은 5월 20일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틀 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다.

제도화된 군사독재

뿌라웃은 이듬해 말에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총선은 2016년으로 미뤄졌고, 2016년 선거는 2017년으로, 이는 다시 2018년으로 연기됐다. 2018년이 되자 뿌라웃은 다시 선거를 연기하여 결국 2019년 3월에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처럼 여러 차례 선거를 연기하다가 2019년에 이르러서야 실시한 이유는 선거를 통해 집권을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먼저 군부는 2016년 8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였다. 2017년 4월 공포된 새 헌법에서는 상원 250명, 하원 500명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하원의원은 모두 유권자가 선출되되 상원의원은 군부가 임명하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상·하원의원 750명 가운데 과반의 지지(최소 376표)를 얻으면 총리로 선출될 수 있으므로, 뿌라웃은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에 더해 하원의원 126명의 지지만 얻으면 총리가 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과 전진당 부상

2018년 3월 군부는 자신들의 정당 빨랑쁘라차랏당(Palang Pracharath Party)을 창당하였고, 그 1년 뒤 총선을 실시하였다. 하원의원 500명을 선출하는 2019년 3월 총선에서 뿌라웃의 빨랑쁘라차랏당은 116석을 획득하여 2위에 머물렀고, 친탁신계 프아타이당이 137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이 되었다. 그러나 2017년 헌법에 따라 하원에서 10명의 지지만 추가로 얻으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뿌라웃은 손쉽게 총리로 선출되었다.

하원 선거에서 500석 중 126석만 획득하면 군부가 집권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은 쉽게 변화되기 어렵다. 2017년 헌법에 포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조항은 헌법 개정 시 상원이 하원의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부에 유리한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설사 선거에서 군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하원 500석 중 376석 이상을 확보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총리가 되더라도 헌법을 개정하기는 어렵다. 군사독재가 제도화된 것이다.

2020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2019년 총선에서 3위를 차지한 반군부 정당인 미래전진당(Future Forward Party)을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해산시켰다. 미래전진당은 친탁신 계열이나 반탁신 계열이 아닌 제3의 정당으로서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젊은 층의 큰 지지를 받고 있었다. 군부가 헌법재판소를 움직여 미래전진당을 해산시켰다고 믿는 젊은 유권자들은 이후 전국적인 반군부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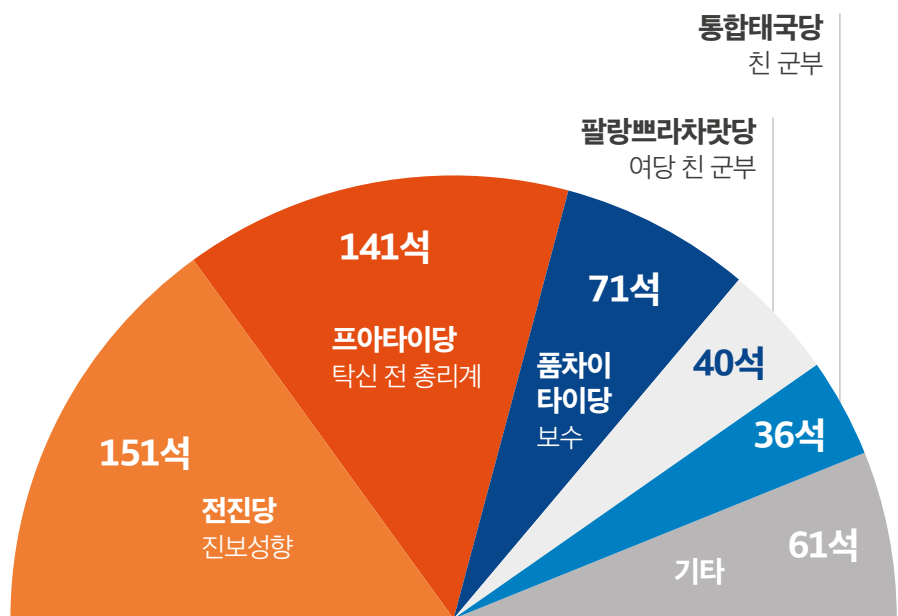
이들은 2020년 7월 18일 자유청년(Free Youth)을 조직하여 세 가지 핵심 요구 사항(three core demands)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1) 국회를 해산하고, (2) 사람들에게 대한 위협을 중단하며, (3) 헌법을 개정하라는 것이다. 2017년 헌법을 개정하여 제도화된 군사독재를 종식하려는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목할 것은 청년들의 반군부 시위에서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점이다. 2020년 8월 10일 이들은 군주제 개혁에 관한 10가지 요구 사항(ten demands on reform of the monarchy)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태국에서 금기시되어 온 왕실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왕의 소송 면책권 폐지, 왕실모독죄(lèse majesté) 폐지, 왕의 개인 자산과 왕실 자산 분리, 추밀원(Privy Council)과 같은 왕실 기구 철폐, 왕실 자산에 대한 감사, 군주제 비판한 사람에 대한 살해 사건 조사, 쿠데타 승인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들이 군주제 개혁을 요구한 데에는 2016년 10월 13일 서거한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뒤를 이어 그해 12월 1일 왕위에 오른 현재 국왕 마하 와치랄롱꼰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하였다. 1946년부터 70년 동안 국왕으로서 태국 국민의 존경을 크게 받았던 푸미폰 전 국왕과 달리, 현 와치랄롱꼰 국왕은 왕세자 시절부터 문란한 사생활과 기행으로 논란이 되었다. 왕이 된 이후 사치스러운 생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왕과 왕실에 대한 존경심을 잃은 젊은 세대가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2023년 총선이 다가오자 군부를 반대하고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젊은 유권자들은 해산당한 미래전진당 의원 50여 명이 합류한 전진당(Move Forward Party)에 지지를 결집하였다. 특히 미래전진당 소속으로 2019년 총선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피타 림짜른랏이 전진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젊고 매력적인 피타 대표의 인기와 함께 군부 반대와 군주제 개혁을 외치는 전진당의 지지율도 급속히 높아졌다. 그 결과 전진당은 하원 500석 중 151석을 획득하여 141석에 그친 탁신 계열 프아타이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탁신이 등장했던 2001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비탁신 계열 정당이 탁신 계열 정당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것이다. 특히 젊은 유권자가 많은 수도 방콕에서는 전진당이 33개 의석 중 32석을 얻었다.

2023년 태국 국회의원 총선거(하원) 결과 / 총 500석



전진당의 좌절과 군부가 선택한 민선 정부

높은 인기에 힘입어 전진당 피타 대표는 총선 직후 자신이 총리로 선출될 것임을 자신했다. 그러나 2017년 헌법에 따라 상하원 750석 중 376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군부가 임명한 상원 250석을 제외한 하원 500석 가운데 376석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빨랑쁘라차랏당과 통합태국당(United Thai Nation Party) 둘로 쪼개진 군부 정당이 합해서 76석을 획득하는 데 그쳐 군부는 큰 타격을 입은 듯 했으나, 군부가 임명한 상원 250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326석을 갖고 50석만 확보하면 집권을 연장할 수 있었다.

결국 전진당 피타 대표는 프아타이당 등 7개 정당 연합을 결성하여 7월 13일 국회의 총리 선출에 도전하였으나 324표를 얻는 데 그쳤다. 7월 19일 총리 선출을 위한 2차 투표에 도전했으나, 1차 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를 다시 지명해도 되는지 여부를 놓고 장시간 토론이 벌어졌다. 그 시각 헌법재판소가 피타 대표의 의원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표결은 무산되었다. 의원 직무 정지 결정 이유는 피타 대표가 태국 방송사 iTV 주식을 보유한 것은 방송사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태국 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것이었다. 피타의 집권을 막기 위해 군부는 7월 12일 헌법재판소에 의원 직무 정지를 요청했고, 헌법재판소는 1주일 만에 의원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이번에 피타 대표가 총리로 선출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다.

군부는 가장 불편한 전진당의 피타를 제거한 후, 다음 총리를 선택해야 했다. 뿌라웃이나 다른 군부 지도자가 직접 총리 후보로 나설 수도 있었으나, 5월 총선에서 군부 정당들은 76석을 얻는 데 그쳤기 때문에 반군부 세력의 큰 저항에 부딪힐 위험이 컸다. 뿌라웃이 주도하여 2018년 창당한 빨랑쁘라차랏당은 40석, 빨랑쁘라차랏당에서 분리되어 뿌라웃도 합류한 군부 신당인 통합태국당은 겨우 36석을 획득했던 것이다.

군부는 총선에서 71석을 얻어 3위를 기록한 품차이타이당(Bhumjaithai Party)과 같이 군주제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 정당들과 연합하여 반대파의 큰 저항 없이 안정적인 통치가 가능한 사람으로, 5월 총선에서 2위를 차지한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을 차기 총리로 선택했다. 프아타이당은 친탁신 계열 정당으로 광범한 대중 지지를 받는 정당이다. 탁신 전 총리의 딸 패통탄이 프아타이당에서 더 인기 있는 후보였으나, 패통탄을 내세울 경우 반탁신 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옐로셔츠 시위를 다시 초래할 위험도 있었다. 따라서 2022년 프아타이당에 가입한 정치 신인이자 부동산 재벌로서 보수파를 안심시킬 수 있는 세타가 패통탄보다 매력적인 선택지였던 것이다.

군부가 차기 총리로 세타를 내정한 이후 총리 지명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8월 22일 총리 선출을 위한 국회 상·하원 합동회의를 소집했고, 이날 오전 오랜 망명 생활 끝에 탁신이 태

전망: 군부 거부권 유지

국으로 돌아와 부정부패 혐의로 8년 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자신과 가까운 세타가 총리로 선출되면 머지않아 사면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행보이다. 세타는 국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투표에 참여한 728명 의원 중 넉넉한 과반인 482표를 획득하여 총리로 선출되었다. 반대 165표, 기권 81명에 불과하였다. 구체적으로 프아타이당은 군부가 후원하는 2개 정당을 포함한 10개 정당과 연합을 결성했다. 여기에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 지지를 더하여 세타는 수월하게 총리로 선출될 수 있었다.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반대로 총리로 선출되지 못한 전진당 피타 대표의 경우를 보면, 군부는 상원 250석을 무기로 여전히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군부가 가진 권한은 거부권(veto power)이다. 반군부 세력 지도자가 하원 500석 중 376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군부는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나아가 상원 250석을 군부가 지명하고 상·하원 700명 중 과반의 지지를 얻어야 총리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2017년 헌법이 개정되는 것도 군부는 거부할 수 있다. 하원뿐만 아니라 상원도 동의해야 헌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거부권은 현상 변경을 저지하는 권한이다. 헌법으로 제도화된 군부의 거부권은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유지될 텐데, 군부가 헌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군부는 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반군부 개혁 세력 지도자가 총리로 선출되는 것을 막았고,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이 총리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비록 총리로서 국정을 직접 이끌지는 않지만, 군부 정당들은 연립 정부의 일원으로 국정에 참여한다. 세타 총리는 군부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펼치지 못할 것이다. 전진당 피타 대표가 소리 높였던 왕실모독죄 폐지, 왕 개인 자산과 왕실 자산 분리와 같은 군주제 개혁도 없을 것이다.

군부가 총리 선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하고 군주제를 개혁하는 일은 다음 총선에서 전진당과 같은 개혁 정당이 하원에서 376석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할 것이다. 군부와 반군부 세력 간의 갈등에 더하여, 군주제 개혁을 바라는 젊은 개혁 성향 유권자와 현 군주제에 손을 대는 것을 꺼리는 나이 든 보수 성향 유권자 간의 갈등이 향후 태국 정치의 중심 균열 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태국 총선과 총리 선출: 군부가 선택한 민선 정부

발행일 2023년 9월 12일

발행처

 민주회 운동기금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ikd@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9 772508 324001
ISSN 2508-3244

09